

광주체육중 이루리 3관왕 번쩍

춘계여자역도 여중부 53kg급 인상·용상·합계 휩쓸어 보성군청 장슬기 女 일반부 58kg급 금1·은1·동1 획득

역도소녀 이루리(광주체육중)가 제21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여중부 정상에 올랐다. 또 일반부에선 추진리(광주은행)와 장슬기(보성군청)가 우승했다.

이루리는 지난 19일 경기 평택 이충문화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중부 53kg급 경기에서 인상 58kg, 용상 75kg 그리고 합계 133kg으로 3개 부문을 모두 휩쓸어 3개의 금메달을 모두 목에 걸었다.

지난해 48kg급에서 체중을 늘려 출전한 이루리는 이날 타고난 체력을 앞세워 라이벌 박민영(서울체육중·인상 55kg, 용상 71kg, 합계 126kg)과 이주연(강원치악중·인상 52kg, 용상 70kg, 합계 122kg)을 제치고 전국대회 첫 정상에 올랐다.

노은선(보성여중)은 44kg급 인상에서

41kg을 기록, 나희정(충북 병명중·44kg)에 이은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일반부 경기에서 추진리는 53kg급 인상에서 74kg을 들어올려 최유정(경남도청·70kg)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추진리는 용상에서 최유정(100kg) 보다 9kg이나 부족한 91kg에 그쳐 합계 부문과 함께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이로써 추진리는 이번 대회에서 금 1, 은 2개를 기록했다.

장슬기는 이날 58kg급 용상 1차시기에 98kg을 들어 최영아(충북도청·94kg)의 추격을 뿌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열린 인상에서 장슬기는 70kg으로 최영아(78kg), 이현정(수원시청·73kg)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결국 합계에서 168kg을 기록한 장슬기가 이현정(163kg·3위)을 제치고 최영아(172kg·1위)에



광주체육중 이루리가 제21회 전국춘계 여자역도경기대회 여중부 53kg급에서 3관왕을 차지한 후 금메달 3개를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광주체육중 제공>

이은 은메달을 획득, 이번 대회 금 1, 은 1, 동 1개의 선전을 펼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2010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휠체어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선수단이 21일(한국시각) 캐나다 밴쿠버 서튼플레이스호텔 내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메달을 깨물어보고 있다. 이랫쪽 오른쪽부터 김명진, 조양현, 김학성, 박길우, 강미숙 선수, 윗줄 왼쪽부터 김우성 선수단장, 김우택 감독, 양세영 코치, 이상성 트레이너. <연합뉴스>

휠체어컬링 銀 쾌거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2010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21일(이하 한국시각) 밴쿠버 패럴림픽 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전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계최강으로 꼽히는 주최국 캐나다에 7-8로 졌다.

한국은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눈앞에 뒀지만 캐나다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역대 두 번째 동계 패럴림픽 은메달에 만족했다. 하지만 한국은 동계 단체전에서 첫 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안성했다.

캐나다는 결승전에서 고도로 섬세한 포석과 강력한 집중력을 더욱 과시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기술과 근성을 겸비한 한국 선수들도 끝까지 호락호락하지 않고 강력한 뒷심을 발휘하며 캐나다를 마지막 포석까지 긴장시켰다.

4엔드까지 1-8 큰 점수차로 열세를 면치 못하던 한국은 6엔드에서 치밀한 방어작전으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면서 2점을 뽑아 내 5-8까지 따라붙었다. 7엔드에서도 상대가 후공의 이점을 안았음에도 중앙에 정교하게 돌을 놓아 상대를 압박하면서 1점을 추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동계 단체전에서 첫 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안성했다.

캐나다는 결승전에서 고도로 섬세한 포석과 강력한 집중력을 더욱 과시했다.

한국의 돌 1개를 밖으로 쳐내면서 7-8로 1점차 선승을 거뒀다.

▲휠체어컬링=‘얼음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비장애인 컬링과 사실상 같은 종목이다. 휠체어를 타고 손대신 막대(쥬)로 돌을 미는 점과 전진하는 돌 앞에서 포석을 더욱 섬세하게 조정하기 위한 빗자루질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이다.

동계 패럴림픽 정식종목인 휠체어컬링은 8엔드로 구성된다. 4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 여성이 반드시 1명 이상 편성돼야 한다. <연합뉴스>

세계최강 캐나다에 1점차 석패 패럴림픽 단체전 사상 첫 메달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2010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21일(이하 한국시각) 밴쿠버 패럴림픽 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전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계최강으로 꼽히는 주최국 캐나다에 7-8로 졌다.

한국은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눈앞에 뒀지만 캐나다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역대 두 번째 동계 패럴림픽 은메달에 만족했다. 하지만 한국은 동계 단체전에서 첫 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안성했다.

캐나다는 결승전에서 고도로 섬세한 포석과 강력한 집중력을 더욱 과시했다.

광주 윤리중 내일 양궁부 창단

광주 윤리중(교장 천병석) 양궁부가 창단된다.

윤리중 양궁부는 23일 오후 3시 학교 강당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윤리중은 지난해 말 축구팀을 창단했던 광덕중의 양궁팀을 그대로 받아 새 팀을 꾸리게 됐다.

윤리중 양궁팀은 김승현 감독, 이권재 코치를 비롯 김병찬(3년), 장봉선(2년), 김종욱(1년) 선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김병찬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시도대항선 단체전 우승을 이끈 주역이며, 장봉선은 2008년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우수 선수이다. 막내 김종욱도 지난해 화랑기 시도대항선

에서 초등부 우승했던 ‘양궁 꿈나무’이다.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경북 예천에서 열리는 종별선수권대회에 출전, 첫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김승현 감독은 “현재는 선수가 3명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백일초에서 선수들을 받아 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 같다”면서 “올해는 신생팀으로 큰 욕심부리지 않고 소년체전 본선에 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쇼트트랙 남녀 500m 메달 사냥 실패

세계선수권대회 첫날 1500m 남녀 금·은·동 싹쓸이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첫날 1500m 메달 싹쓸이에 성공했던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취약종목인 500m에서는 아쉽게 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남녀 대표팀은 21일(한국시각) 새벽 볼라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대회 500m에서 이호석(고양시청)이 유일하게 결승에 진출했지만 중국과 캐나다에 밀리며 메달을 확보하지 못했다.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곽윤기(연

세대)가 예선에서 실격해 불안하게 출발한 남자 대표팀은 성시백(용인시청)마저 4강에서 샤를 아블랑(캐나다)과 충돌하며 실격처분돼 이호석만 결승에 나섰다.

앞서 치러진 여자부 500m에 나선 박승희(광문고), 이은별(고려대), 조혜리(고양시청)도 모두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한편 한국대표팀은 지난 19일 열린 대회 첫날 남녀 1500m 결승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모두 휩쓸었다. <연합뉴스>

핀수영 이관호 한국신

전국선수권 표전 100m 36초41

이관호(강릉시청)가 제18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이관호는 21일 서울체육 실내수영장에서 벌어진 대회 표전 100m에서 36초41을 기록해 종전 기록인 36초50을 갈아치우며 우승했다. 이관호는 이어 벌어진 잠영 50m에서도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고르는 1차 선발전으로 치러졌다. <연합뉴스>

최경주 “첫 승 보인다”

PGA 트랜지션스 3R 공동2위 도약

‘탱크’ 최경주(40)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랜지션스 챔피언십 3라운드에 공동 2위로 뛰어오르며 올 시즌 첫 우승을 노린다.

최경주는 21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베이에서 이니스브룩 골프장(파71·7천340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뺏고 보기는 1개로 막아 4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합계 8언더파 205타를 적어낸 최경주는 전날 공동 11위에서 선두 집 퓨릭(미국·

11언더파 202타)에 3타 뒤진 공동 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레티프 구센(남아공), 칼 페테르손(스웨덴), 부바 왓슨(미국)이 최경주와 함께 2위를 달렸다.

최경주는 앞서 2002년과 2006년 두 번이나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적이 있어 올 시즌 첫 우승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전날 공동 41위였던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는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타를 줄여 공동 33위(1언더파 212타)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日 배구 김연경 ‘득점왕’

한국여자배구의 간판 거포 김연경(22·JT 마블러스)이 일본 진출 첫해 득점왕에 오르면서 최고 거포로 자리매김했다.

김연경은 21일 일본 기후 메모리얼센터에서 열린 2009-2010 일본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정규 시즌 마지막 도요타 컨시어스 경기에 선발 출전해 블로킹 1개를 포함해 양팀에서 가장 많은 18점을 올렸다.

올 시즌 28경기 전 경기에 출전한 김연경은 총 696점을 올려 2위인 브라질 출신 율리베이라(히사미쓰·572점)를 큰 점수 차로 따돌리며 득점왕에 올랐다.

또 세트당 공격 득점(6.18점)에서 1위, 공격 성공률(47.7%) 3위, 세트당 블로킹에서 10위(0.47개)에 올랐다. <연합뉴스>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 폭발이다. 그동안 이것저것 기대했다가 실패만 컷기에 큰놈을 보고도 혹시나 반신반의 하여 사용해 봤더니 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용즉시 볼본 일어서며 장시간 지속되는 편안 생선인 지름은 1.5cm로 돌아간 듯 뿌듯함을 느낀다. 1달기부터 개선을 위한 기구 실용신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해도 파부 같은 촉감에 달팽이 모양 같은 실리온이 처음 보는 것이라 주사나 약도 아니고 반

자 같은 평이 나 진공펌프도 아닌 신제품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장 없이 반구적으로 정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 호기심을 싹틔우지 않는 분은 회혼의 풀. 파워마카 100% 분말로 대신하면 좋습니다 (30일분 90,000 60일분 150,000) 구매시 핫나경 서적에 있는 것은 유사제품입니다. (주)글로벌 핫나경 www.핫나경.kr 99,000원 동진판매사(주) 제1188호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www.핫나경.kr (G-FLOW)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의 최대 고민해결!

중간에 사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르...본들의 “기”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한 마그네슘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www.핫나경.kr

상담전화 농협 301-0036-8883-71 (주)글로벌 핫나경 동진판매사(주) 제1188호
1577-4101 010-8952-4114
1588-4102 010-8558-4114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농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용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밀려도진

농기계 관련 사업자 유지입증 경험자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 사용합니다

- 최대 전속력 5.000rpm 정도로 1인승이 적을
- 혼선과 배터리를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
- 연재 어디서나 편리한 A/S
- 1인승의 국산화는 안정적인 A/S가 가능합니다.
- 장거리의 농업용지를 통한 초기 구매비용 최소화
- 판매가의 90% 정가저리(1년 거치 3년 분할, 연리 3%
- 중저서 40km/주행(1회충전 200m)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지금 가능

많은과 화합으로 변형하는 한라그룹

한라헬스텍(주)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

음성 채팅의 지원

광주, 전남 최고!
전통성인 커뮤니티

13년 전통의 최고의 서비스
국내는 물론 해외 교포도 모두 직접 연결됩니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왕입니다!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입니다.

시공정정 확인하세요
전화속시 연결

전국 최저
요금제 이용!!

1588-3533

*여성분은 문의시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공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히트폰

전화정보(ARS) 사업자 모집 | 무제한, 무정보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010. 3808. 2888

한국부동산컨설팅

수원지구 1만평 매매 3.3㎡당 1백만원
분할가능. 도로접 <구매>
시세 3.3㎡당 2백만원

서구지역 골프장부지 1만평 3.3㎡당 1백만원, 분할가능, 도로접, 각지

중흥동 대로접, 광주역앞 130평
매매가 상담 후 결정

동림동 대로접, 한창고 사용 500평
3.3㎡당 300만원 <구매>

양산동 원룸부지, 일신아파트앞
125평 분할가능
60평, 65평 3.3㎡당 150만원

※ 구함 : 토지 상가 공장부지 원룸

한국부동산 컨설팅 <김호현>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